

갑오경장이 어문 생활에 끼친 영향

- 교과서를 중심으로 -

李 氣 銅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1.0.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서 이른바 1894년의 갑오경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이란 단절되지 않으며 앞선 시대와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하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변화란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근대 서구의 문화, 문물과 접촉함으로써 시작된 근대화를 지향하는 한 시기의 출발점으로서 갑오경장은 특히 우리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그 의의를 크게 갖는다. 이때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관점과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기저에는 이전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보다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과 근대적 사회 구조로의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이후 실제로 당시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제도적으로 표면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趙容萬(1973: 5-6)에서는 신문화 운동의 양상으로 생활면에 있어서 양복의 착용, 서양식 이발, 태양력의 채용을 비롯하여 전신, 우편제도의 채용, 철도 등 교통기관의 변혁, 의무교육의 실시와 殖産興業을 위한 실제 교육의 치중, 신문과 서적·잡지의 발간, 言文一致의 國字改良, 문학·연극·음악·체육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곧 기존의 가치와 형식을 벗어나 사회의 모든 부분에

서의 변혁을 뜻하는 것이었다. 趙容萬(1973:4)에 따르면 신문화운동이 특히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를 1919년 기미독립운동으로부터 1931년의 만주사변이 발발하던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¹⁾ 그렇다면 이는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부터 불과 20여 년 정도의 기간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변화는 제도와 같은 형식적인 경우만이 아니라 동시에 국내외의 시대 상황과 관련한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특히 교육과 어문에 관련한 부분에 주목하게 된다.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高宗에 의한 官制의 개편 가운데 근대적 의미의 학교 교육의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곧 官制의 개편 내용 가운데 교육기관에 관한 항목으로 '專門學務局 掌中學校 大學校 技藝學校 外國語學校 及專門學校 參議一員 主事四員' 과 '普通學務局 掌小學校 師範學校 參議一員 主事四員' 등의 기록이 그것이다. 이에 뒤를 이어 발표된 敎育立國詔書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德養은 五倫의 行實을 修야 俗綱을 紊亂치 勿하며 風敎를 扶植야 卞 人世의 秩序를 維持호고 社會의 幸福을 增進호라', '體養은 動作에 常이 有호야 勤勵호므로 主호고 惰逸을 貪치 勿호며 苦難을 避치 勿호야 兩筋을 固케 호며 兩骨을 健케 호야 康壯 無病호 樂을 享受호라', '智養은 物을 格호리 知를 致호고 理를 窮호리 性을 盡호야 好惡 是非 長短에 自他의 區域을 不立호고 詳究 博通호야 一己의 私를 經營치 勿호며 公衆의 利益을 跋圖호라'. 이와같은 '德養, 體養, 智養'으로 이루어진 교육의 3대 德目은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오늘의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²⁾

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연적으로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편찬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의 교과서는 대체로 새로운 시대적 상황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이들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어문에 대한 여러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³⁾ 교과서의 저작에 있어 우선적으로 부딪히는 표기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1) 趙容萬(1973:4)에서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를 일제의 지배 시기로 설정하고 모두 4기로 나누고 있다. 1919년부터 1931년까지는 제3기에 해당하는데 일제의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정책전환에 따라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등의 통제가 완화되고 이때 각 방면으로의 신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파악한다.

2) 朴炳采 外(1973:412)에 따르면 1885년의 梨花學堂이 미국의 선교부에 의하여 설립되었지만 특히 敎育立國詔書 이후에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1908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00校이며 학생 수는 약 2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바로 당시의 신교육과 신학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그만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3) 李鍾國(1991:138-154)에서는 1906년에서 1910년까지 간행된 교과용 도서의 일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과서의 내용은 修身, 국어, 문법, 국사 등 모두 24개의 교과 영역으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비록 규범화한 원칙은 없었지만 교과서의 기본적인 목표가 동시에 많은 교육대상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각각의 교과서는 당시 편찬자들이 갖는 나름대로의 일관된 표기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李鍾國(1991: 125-154)에 따르면 흔히 개화기로 일컬어지는 갑오경장 이래 1910년 사이에 간행된 각종 교과서 가운데 국어과와 문법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53종이 있다. 그 교과서의 편찬과 간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로서는 매우 많은 양의 출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개화기 교과서 가운데 주요 분석 대상 자료로 아래에 제시하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어문과 관련한 여러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 國民小學讀本 : 學部 編纂, 1895년 간행.
- 小學讀本 : 學部 編纂, 1895년 간행.
- 新訂尋常小學 : 學部 編纂, 1896년 간행.
- 高等小學讀本(권1, 2) : 徽文義塾編輯部 編纂, 1906년 간행.
-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권1~6, 8) : 學部 編纂, 1907년 간행.
- 初等女學讀本 : 李源競 著, 1908년 간행.
- 勞動夜學讀本 : 俞吉濬 編纂, 1908년 간행.
- 最新初等小學(권1~4) : 鄭寅琬 編述, 1908년 간행.
- 녀주독본(상, 하) : 張志淵 編輯, 1908년 간행.
- 婦幼獨習(상, 하) : 姜華錫 著述, 1908년 간행.
- 樵牧必知(상, 하) : 鄭崙秀 著, 1909년 간행.
- 新纂初等小學(권1~6) : 玄采 著作, 1909년 간행.

2. 개화기 교과서에 드러난 특징

2.0. 우리의 어문과 관련하여 개화기로 일컬어지는 시기는 매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개화기가 자리하는 시대적 특징이 근대국어 시기의 마지막에 놓이며 동시에 현대국어로 들어가는 첫 길목이기도 한 것이다⁴⁾. 따라서 근대국어와 현대국어로 직접

4) 개화기의 시대적 위치 설정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약간씩 다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 기문(1981)에서 설정한 19세기와 20세기의 교체기로서 1910년대를 상한으로 하는 기준을 따라 대상 자료를 선택하였다.

맞물리는 이 시기의 우리 어문이 지니는 성격은 대체로 근대국어와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국어의 특징과 비교하여 부분적으로는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2.1. 개화기 교과서에서도 정음문자의 창제와 함께 오랜 역사를 지니는 표기문자 가운데 하나인 합용병서자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개화기 교과서에서 확인되는 어두, 또는 어중 위치에서의 'ㅅ' 계열과 'ㅈ' 계열은 다음과 같다.

1) 'ㅅ' 계열

- (1) 'ㅅ' : 썩, 쏘, 썩질, 소리, 썩소리, 썩닷기, 짜지,
습소, 흡피, 찌지계, 잇쓰러, 싹으며, 업슬써서오
- (2) 'ㅆ' : 쌀, 쫄, 쓰님, 쫄뚝, 뿌러, 쫄러질, 쫄히고,
쫄러지고, 쫄룻치니, 쫄쫄히계
- (3) 'ㅈ' : 쫄, 쫄, 쫄라, 쫄여, 쫄족히고, 쫄누이다
- (4) 'ㅉ' : 락쪽, 락어, 락질열, 흘씨어다, 지을씨니라

2) 'ㅈ' 계열

- (1) 'ㅉ' : 쌀, 뵈, 뵈며, 뵈난, 뵈이여, 무릅뵈고
- (2) 'ㅊ' : 뵈져, 뵈아, 뵈르게, 글뵈

우리의 음운사에서 합용병서에 대해서는 각자병서와 함께 오랫동안 꾸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특히 'ㅅ' 계열과 'ㅈ' 계열의 합용병서자는 각각 된소리와 어두자음군을 형성하였음이 밝혀졌고 이후에는 이들 문자가 모두 된소리를 나타내는 합류의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15세기의 합용병서자는 'ㅅ' 계열과 'ㅈ' 계열 및 'ㅉ' 계열의 세 계열이 있었다. 이들은 이후 점차로 감소되어 洪允杓(1986: 116-117)에서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기에 이르러서는 두 개의 삼자합용자와 'ㅉ'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계속되어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ㅈ' 계열의 합용병서자가 'ㅅ' 계열의 합용병서에 포함되었으며 단지 'ㅅ ㅆ ㅉ ㅈ ㅊ ㅉ ㅈ'와 같이 일곱 개만이 쓰이게 되었다. 개화기 교과서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감소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즉, 근대국어에서 사용되었던 유기음과 결합한 'ㅅ' 계열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ㅉ'도 역시 'ㅅ' 계열로 대체되었던 것이다⁵⁾.

5) 근대국어에서 쓰이는 'ㅅ'과 결합한 유기음의 합용병서로는 'ㅅ, ㅆ, ㅉ, ㅈ, ㅊ'이 있다.

한편 개화기 교과서에서 각자병서에 의한 어휘 예는 '쓰다, 싸흠, 쏘아' 등과 같이 'ㅍ'만이 나타난다. 이는 어두 위치에서 'ㅍ, ㅑ, ㅑ, ㅑ, ㅑ'와 같은 된소리의 기능을 가지는 각자병서가 18세기까지는 완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특이한 양상이기도 한 것이다.⁶⁾ 이러한 특징은 표기자들이 이들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관련을 짓기도 하지만 합용병서자와 음성적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ㅍ' 계열의 합용병서에 그대로 이끌린 것으로 판단된다.

2.2. 개화기 교과서에서 드러나는 표기의 형식도 또한 주목된다. 종래에 국어의 표기 단계로서는 흔히 중기 국어의 연철 형식에서 출발하여 근대국어의 중철 형식을 거쳐 형태소를 밝혀 적는 분철 형식의 과정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표기 과정 가운데 특히 가장 오랫동안 쓰였던 중철 표기에 대하여는 단지 연철 표기에서 분철 표기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만 보아왔다. 그러나 田光鉉(1971 : 4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국어에서만 아니라 개화기 교과서의 자료에서도 이와같은 중철 표기의 유형을 살펴 보면 나름대로 일정한 표기 원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곧 중철 형식이 단순히 과도기적인 과정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또한 박중희(1993 : 646-647)에서 중철 표기는 형태주의도 아니고 음소주의도 아닌 조음적인 이중음절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새로운 지적에서도 뒷받침한다.⁷⁾ 개화기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형태를 밝혀 적는 분철 표기의 형식을 보여 주지만 부분적으로는 '달너지니, 불너, 이러타시' 등과 같은 중철의 형식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정한 표기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당시로서는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표기 형식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한다. 발음 과정과는 달리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형식에 관한 "婦幼獨習"에서의 다음과 같은 기록은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이제 대개 두오섯홀 설명하노니 비유컨대(이거시)라하면입이순흐나 본문법이(이것이)니 이거슬 이거세 이거스로 하노는것이다 (이것을)(이것에)(이것으로) 하노것이 본법인즉 말홀제는 이거시 이거슬 이거세 이거스로 이러케 입을뜨아홀지라도 만일글노쓰면(이것이)(이것을)(이것에)(이것으로)이러케 쓰는것이올홀거시오"(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임). 이제 개화기 교과서에서의 표기 형식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먼저 'ㅍ'과 'ㄷ'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6) 洪允杓(1986 : 123-124)에서는 'ㅍ' 이후 처음으로 어두 위치에 나타난 각자병서는 17세기 초의 'ㅑ'이며 이후 'ㅑ, ㅑ, ㅑ'의 차례로 쓰이면서 18세기에는 완결된 것으로 파악한다.
 7) 박중희(1993 : 638-646)에서는 'ㅍ' 받침은 철저하게 분철 표기를 보이지 않으며 중철 표기 방식이 거의 사라진 19세기 말까지도 'ㅍ'만이 중철 표기를 나타내고 있음을 들어 중철 표기는 이중음절성과 함께 양음절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2.0. 중기국어에서 음절말 위치의 'ㅅ'과 'ㄷ'은 그 음가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근대국어에 들어와 비로소 중화의 과정을 밟아 미파화한 음으로 실현되었다. 이들은 음절말 위치에서 비록 표기로서는 구별되었지만 음성적 실현은 동일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李基文(1978: 28)에서는 이러한 미파화는 곧 이들의 표기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16세기 말에서 시작하여 17세기까지는 이들의 전통적인 구별 표기는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田光鉉(1971: 44-45)에서는 이들 'ㅅ'과 'ㄷ'은 잠시 혼란한 표기를 드러내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ㅅ'의 표기로 단일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때 용언에서는 후행음절의 첫소리가 자음 또는 모음인지 상관없이 'ㅅ' 또는 'ㄷ'이 쓰여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ㅅ'으로의 단일화는 계속되어 용언에서와는 달리 체언이나 부사류에서는 완전히 'ㅅ'으로 합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개화기 교과서를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3) 'ㅅ' 용언의 표기

벗겨, 웃고, 잇다
 니을계(繼), 지을술(述)

4) 'ㄷ' 용언의 표기

못은, 엇은, 밋아, 밋을신(信)
 엇다, 밋지, 본밋고, 엇다
 뚫고, 뚫지, 뚫거늘

위의 예들은 'ㅅ'과 'ㄷ'의 규칙 용언 및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에서 모두 'ㅅ'으로 단일화한 것을 보여준다. 어떤 경우에도 음절말의 위치에서 'ㄷ'의 표기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 형식은 19세기말까지도 부분적으로 'ㄷ'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특징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ㄷ' 용언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도 'ㅅ'만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분철 표기의 형식을 통하여 음절말에서의 'ㅅ'이 먼저 미파화의 과정을 밟아 음성 [t]로 실현되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기 형식은 단순히 정서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음성 실현의 방안으로 활용되었다는 특성을 갖는 것이다.

2.2.1. 분철 표기의 과정에 대하여 李翊燮(1986: 12)에서는 17세기에 이르러 체언에서부터 그 기반을 잡았으며 18세기에는 일반화되어 19세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철 표기의 형식은 金重鎭(1992: 123)에 따르면 한자어의 표기에 따른 영향

으로 보고 있다. 즉, 언해류의 문헌에서 한자에 이어지는 조사를 한글로 동시에 표기하는 과정에서 분철 표기의 형식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자와 조사가 결합할 경우에 그 표기 방안은 이미 훈민정음 해례에서도 용례를 보이고 있으며 음운론적 표기와 형태론적 표기에 대한 갈등도 역시 15세기부터 이어졌음을 감안하면 분철 표기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는 형태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드러내고자 했던 태도가 우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철 표기는 16세기의 문헌에서 용언보다는 체언에서 먼저 나타난다. 개화기 교과서에서 드러나는 표기는 대체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분철 표기의 형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ㅅ’을 말음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철의 형식과 중철의 형식을 혼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근대국어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즉 근대국어에서 ‘ㄷ’말음이 ‘ㅅ’으로 표기되었을 때는 후행하는 자음 또는 모음과 상관없이 분철 표기를 보이지만 용언에서 어간말자음으로 ‘ㅅ’을 보유할 때는 연철 표기와 함께 중철 표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한편, 접받침을 가지는 어휘에서는 주로 연철 표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맑은, 맑고’와 같은 예는 그 형태를 밝혀 주기도 하여 ‘한아(하나), 녀이고(여기고)’ 등과 함께 소수의 용례이기는 하지만 점차 형태 표기의 경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므로 결국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 형식은 대체로 근대국어에서 보여 주는 표기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분철 표기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추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개화기 교과서에서 확인된 예를 아래에 보인다.

5) 체언에서

- (1) 국을, 황혼에, 퉁실이, 마음을, 집에,
- (2) 거슨, 거시, 거스토, 솟슬, 쫓슬, 낫슨, 옷시

6) 용언에서

- (1) 물어, 집어, 들으며, 본밧아, 숨으느, 썸을제
- (2) 잇스니, 빗슬제
- (3) 업스면, 일으며, 안져서, 만코, 안코, 일치말며

2.3. 개화기 교과서에서 보여 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띄어쓰기에 대한 것이다⁸⁾. 근

8) 沈在箕(1992: 190-191)에서는 한두 건의 예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개화기 교과서에서 문장부호나 띄어쓰기가 없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1905년 이후 圈点이나 滴点이 사용되어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사용의 전 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용법은 하나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기에 여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대국어의 자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띄어쓰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모든 교과서에서 이러한 띄어쓰기의 형식이 일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어서 교과서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國民小學讀本”에서는 전혀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부호도 사용되지 않는다. 띄어쓰기의 형식은 빈 칸에 의한 것과 권점, 또는 모점에 의한 방식 및 빈 칸과 동시에 권점도 첨가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新訂尋常小學”은 띄어쓰기에 대한 초기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그 한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마침표는 원문에서는 圈点임).

가마귀는.까악.까악.울면서.수풀에서.나오고.참식은.지치지.울면서.窟下에서.들네
고.또.문을.여는소리와.우물에서.물짓는소리와.牛馬가.외糞間에서나오는소리는.참
.식精神이.나옴니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오늘과 같은 빈 칸에 의한 형식으로 띄어쓰기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위치에 권점을 부가함으로써 이는 실질적으로 띄어쓰기와 같은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에서 보여 주는 권점의 위치는 대체로 어절 단위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자료에 따라서 권점의 위치는 어절 또는 구, 절 등의 단위에 일관성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표기자의 의도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함께 놓이기도 하는데 대체로 긴 문장을 적절하게 가르는 독법상의 편의를 위한 休止의 위치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李基文(1989: 14)에 의하면 독립신문은 전형적인 띄어쓰기를 취하고 있는데 이때 특징으로서 형식 명사 '것'은 뒷말에 붙여 쓰며 어근과 결합하는 '하다' 동사는 띄어쓴다는 점을 지적한다⁹⁾. 그러나 이와는 달리 “樵牧必知”에서도 빈 칸에 의한 방법으로 띄어쓰기를 하지만 이때의 띄어쓰기는 오늘의 그것과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정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래에 한 예를 보인다(괄호 안의 한자는 원문에서 한글과 함께 병기된 것임).

학부는 갑오년전 禮曹(禮曹)니 학부(學部)신이 전국에 교육(敎育)하는 소무(小務)를 관리(管理)하여
인민(人民)의 지식(知識)을 발달(發達)하느니 세계(世界) 列邦(列邦)의 부강(富強)한 나라(國家)를 보견(輔
衛)하느니 다 교육(敎育)이 발달(發達)하고 학교(學校)가 흥旺(興旺)하야 인민(人民)의 지식(知識)이 기명(奇明)하되 우리
나라(國家)는 인

9) 권점의 형식은 '용비어천가'에서도 나타난다. 빈 칸에 의한 띄어쓰기는 1896년의 '독립신문'에서 비롯하며 이때 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 쉽도록' 하는데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의 지식이 우미(愚昧)하여 칠실혼몽중(漆室昏夢中)에 잇스니 이는 교육이 발
달치 못한 연고라 엇지 민망치 아니하리오

한편 “最新初等小學” 卷2에서는 띄어쓰기와 모점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때 띄어쓰
기와 모점의 위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모점은 대체로 어절의 구별을 보여
주지만 띄어쓰기에서는 매우 불규칙하여 어절이나 구와 같은 일정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
다. 그 예를 아래에 보인다.

참새가, 짹짹, 우난, 소래에, 솔맛갓치, 단조름이, 다, 다라나고, 새精神이, 들어온
다, 울타, 오날은, 初等小學讀本, 第二卷의, 第一課를, 工夫하겠스니, 새소래도,
고답삽내다

결국 개화기 교과서에서 보여 주는 다양하게 사용된 권점 또는 모점 및 빈 칸에 의한
띄어쓰기는 실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실험적인 과정으로 쓰여진
여러 방안들은 이후 1933년에 이루어진 맞춤법통일안이 확정된 다음에 사라지고 띄어쓰
기는 빈 칸에 의한 형식으로 굳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4. 개화기 교과서에서 보여 주는 주격표지로는 ‘|’, ‘이’, ‘가’ 등이 있다. 이들 주격
표지 가운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와 ‘|’이다. 주격표지 ‘가’는 1907년에 간행
한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 1908년에 간행된 “最新初等小學”에서 주로 사용되었을
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그 용례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주격표지 ‘가’의 발달
이 16세기 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개화기 교과서에서의 전반적인 표기 태도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표기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주로 모음으로 끝나는 한자어 아래에 연결되던 ‘|’는 그 조건이 점차 확대되어 이
시기에 들어와서는 점차 고유어에도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어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가’가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를 취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과 관
련된 예를 아래에 보인다.

7) (1) 如此 軒집의 居 居는 處 | 잇스니
被殺 軒바 | 되앗더라

(2) 집이 大概 된 後에는
한자에 한 老 人 이 잇서

(3) 닌가平生深仇로아는者 |懸崖우희자거날
모릿가싸져나리는分數를보고

치격표지의 경우에도 대체로 근대국어와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먼저 이들의 용례를 보자.

8) (1) 沙漠을단닐~~에~~먹을거시업서지면
處處에잇는고로모르는스름이업는이다
흔農夫가뎡을나무우에이고

(2) 그것~~히~~는못팔과누의가어미~~히~~는일을거드니
葡萄田밋~~히~~寶貝가잇슬터이니
우리는如此~~히~~爽快~~히~~집의사나넷적을도라보니
큰나무를세워~~우~~희皮物을실고답혀

중기국어에서 사용된 치격표지는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에, 애, 예'가 쓰였으며 이들 이외에도 李崇寧(1985: 173-177)에서 지적한 특이 치격어에 사용되는 '익, 의'가 있었다. 이들 치격표지는 점차 그 형태를 단일화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에'만이 사용되었다. 한편 '이'모음 아래에서 쓰이던 '예'도 18세기 후반부터는 그 기능이 극히 축소되었다. 개화기 교과서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로는 '에'이다. 이때 '에'는 선행어의 음운론적 환경과 무관하여 'ㅣ'로 끝난 경우에도 '예' 형태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8.2)에서와 같이 '익, 의'를 보여주는데 이는 중기국어에서 특수어간 교체를 드러내던 어휘만이 아니라 '에'를 취하던 명사에서도 확대되어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속격표지로는 주로 '의'만이 사용되었다. 이는 근대국어의 경우와 일치한다. 그러나 속격표지에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익'도 나타난다. 즉, '익'는 대명사 '누'에 속격표지 '익'의 결합인 것이다. 이들의 예를 보인다.

9) (1) 父母의恩惠는산보다높고바다보다깊흐오이다
學校는사름의마음을아름답게~~히~~는데니
스름의食物五穀과나물과果實과밋고기등뉴오이다

(2) 그든을바로닌것으로하기어려운일이아니로되

한편 속격 '의'의 발음은 '에' 또는 '애'로 추정된다. 이것은 '에, 애'가 단모음화를 경험한 시기가 18세기 말이었음을 감안한 것인데 때로 속격의 표지로 '에 /애'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개화기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과정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특히 '의계'와 같은 여격표지의 표기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들은 현대국어에서의 '에계'와 같은 것이다.

2.5. 새로운 문물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이에 따른 외국어의 어휘양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외국어는 특히 개화기 교과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화사상의 내용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외국어를 표기하는 방안도 역시 국어의 표기 형식과 같이 일정한 규칙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체로 沈在箕(1992: 188)에서 분류하였듯이 한글을 이용하는 음역 표기와 중국계에 속하는 한자음역 표기로 나누어진다. 외래어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출발하였다. 즉 통일안에서의 외래어 표기에 대한 규정은 '표음주의'의 입장과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외래어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일안은 1941년에야 간행되었다¹⁰⁾. 이제 개화기 교과서에서 확인된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0) (1) 갈리레오 거론부스 고론부스 나파룬 닝콘 뎀스江 람프 룯기 마사
 제셋도 마씨제세프 미싱안 밋시비河 바울街 버스던 버스돈 버엔
 街 벌괄이아 변실바니아 브로두웨 브로클닌 사버텐 사우스街 세
 달街 아라스 아력산더 어하 이어 어호요 웰街 일암스 이리노스
 이스더강 클니블난드 토마스 하도손강 하밀둔 허프긴 히라텔히야
 샤윌드 씨임스

(2) 拿破崙 紐約 倫敦 米國 法國 西班牙 亞歷山大

10) 金敏洙(1973: 119)에 따르면 "外來語表記法統一案"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세칙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그 총칙 2개조는 다음과 같다.
 '一. 外來語를 한글表記함에는 原語의 綴字나 語法的 形態의 어둡함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表音主義로 하되. 現在 使用하는 한글의 字母와 字形만으로써 적는다.'
 '二. 表音은 原語의 發音을 正確히 表示한 萬國音聲記號를 標準으로 하며, 아래의 對照表에 依하여 적음을 原則으로 한다.'

亞米利加 英吉利國 土耳其 巴黎 荷蘭國 華盛頓

위에서 보여 주듯이 이들은 국명, 지명, 인명 등이며 한자에 의한 표기보다 한글에 의한 경우가 훨씬 많다. 이는 이들 외국어가 주로 구미 계열의 어휘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 외국어를 전사하는 데는 한글에 의한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이들의 표기과정에서는 중성자음으로는 평음만을 사용하며 어두 위치에서의 유기음에 의한 표기도 빈번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굳이 원음에 충실하고자 특이한 표기를 하지 않으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1]을 드러내는 경우에도 고유어의 표기 형식을 그대로 좇아 '르니'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다.

2.6. 갑오경장 이후 국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전통적으로 지식 계층에 사용된 순한문체의 형식은 점차 국한문혼용체와 함께 독립신문에서 보여 주듯이 순한글체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체상의 변혁에 영향을 미친 것은 朴炳采(1973: 405)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1894년에 이루어진 '獨立誓告文', '洪範十四條' 및 그 '繪音'이었다. 즉 이들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공문서로는 처음으로 순한문체, 순한글체, 국한문혼용체의 형식으로 각각 작성되었던 것이다. 이는 다시 官報에서 순한문체, 국한문혼용체, 순한글체의 차례로 실렸는데 이러한 순서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서 문체의 실용 단계에 있어서 한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朴炳采, 1973: 409). 이러한 문체상의 변화는 개화기의 교과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즉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국한문혼용의 형식을 보여준다. 민현식(1994: 40-43)에서는 국한문체를 전통국한문체와 개화기 국한문체로 나누며 개화기 국한문체 역시 서유견문식과 구결문식으로 구분한다¹¹⁾. 이는 어절 단위로 현토한 것과 구절 단위로 현토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토의 부분을 빼면 국어의 어순과 한문의 어순으로 차이를 보여 준다. 개화기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두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高等小學讀本"의 예를 보자.

吾人以此國土에生호았스니人民된權利와義務를勿失호리라

凡我學生이여一家는個人家族의集合호는이오一國은全體家族의 集成호는리라

11) 민현식(1994: 47)에서는 개화기 국한문체는 개화파의 호응 속에 개화기의 서류 문체로 쓰였지만 대중화에는 난점이 많았으며 결국은 용비어천가식의 전통 국한문체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런 경향을 가속화한 것은 계몽 잡지들의 전통 국한문체 기사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위의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글 표기에서는 고유어를 거의 찾을 수 없으며 단지 조사와 어미류에 한정하는데 용언의 어미는 'ㅎ' 동사의 활용형만이 나타날 뿐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국한문의 형식과 비교하면 그 차이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비교적 우리말 표기가 적다고 판단되는 “小學讀本”에서 몇 예를 아래에 보인다.

節을直히ㅎ야인의 畧를밧을지언정憲를曲히ㅎ야인의흠를밧지아니홀것시오罪가
업시인의畧를밧을지언정實이업시인의譽를밧지아니홀지니라

偏信ㅎ야奸의欺는되되지말며自任ㅎ야氣의使는되되지말며巴의長으로人的短
을形치말며巴의拙로人的能을畧치말지니라

문장의 길이는 대체로 장형문으로 이루어진다.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하나의 문장이 한 課를 이루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형문은 연결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장형문의 형식은 15세기 이후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성을 지닌 것이다. 언해류나 각종 한글에 의한 문헌에서 우리는 이러한 장형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형문의 특징은 곧 일부 교과서에서 보여 주는 구어체 형식과 문답식의 문장에서는 그 문장의 길이가 짧아진다. 장형문, 구어체 및 문답식의 문장에 해당하는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어머니 된자 | 누가 그 주식(子息)으로ㅎ여곰 착한사람이 됨을 원(願)치아니
ㅎ리오마는 미양 인정(愛情)에 빠져 그 주식의 악(惡)ㅎ형실을 기르느니 아바
지 된자 | 그 주식으로 멀니 학교(學校)에 보내고져ㅎ여도 그 어머니나 혹(或)
그 조모(祖母)가 인정에 못니져 반티(反對)ㅎ는 자 | 만ㅎ니 이거슨 다 녀주의
학문(學問)이 업서 그러ㅎ이니라

그뜻은,우리의, 의복하난,면화,뜻이니, 뜻중에,도흔,뜻치,올시다

선생 너의들은 이 려주를 헤여 보아라

학도 한아 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올시다

3. 마무리

이제까지 1894년 갑오경장과 함께 새로운 사회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개화기로 일컬어지는 시기의 우리 어문의 모습을 개화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 시기의 우리 어문이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그 독자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문자, 표기, 문체 등을 중심으로 그 특징적인 면을 찾아 보려고 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마무리로 삼고자 한다.

3.0. 근대식 학교 교육의 확대에 따라 요구되는 교과서의 편찬은 동시에 표기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진행된 사회의 변혁은 이를 미처 확립하기도 전에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인 표기 형식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근대국어의 경우와는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는 당시의 언중들이 우리 어문에 대해 갖는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3.1. 어두 위치에 쓰여진 합용병서는 점차 근대국어와 비교하여서도 줄어져 'ㅂ' 계열은 적극적으로 'ㅅ' 계열에 합류되었다. 'ㅂ' 계열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것은 'ㅃ'이었는데 이도 'ㅆ'에 합류되었다. 'ㅅ' 계열의 합용병서와 그 음가를 같이하는 각자병서는 이 시기보다 앞서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빈도는 극히 적어 이에 관한 한 매우 보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2. 'ㅅ'과 'ㄷ'은 우리의 음운사에서 미파화를 겪음으로서 표기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ㄷ'은 점차 'ㅅ'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데 이때 'ㅅ'과 'ㄷ'의 표기상의 혼란은 각각 분철의 형식과 연철의 형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주로 분철의 형식을 보여주어 형태소를 밝히는 입장에 서는 개화기의 자료에서도 'ㅅ'과 'ㄷ'의 경우는 이러한 태도를 따르고 있다.

3.3. 띄어쓰기는 모든 개화기 교과서에서 통일되는 형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띄어쓰기의 방안은 대체로 세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권점, 모점에 의한 것과 빈 칸에 의한 것,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하는 절충적인 형식이다. 이러한 띄어쓰기가 단어의 분류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여러 방안과 노력은 이후의 띄어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기도 하는 것이다.

3.4. 격표지에 대해서는 주격, 처격, 속격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주격표지 '이/가'가 활발하게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ㅣ'의 쓰임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까닭은 이 시기의 국한문혼용체의 형식과 관계되는 듯한데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한글 표기와도 특이하게 결합하는 것이다. 처격표지는 '에'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극히 일부에 특수어간교체를 하는 어휘에서는 '이/의'가 드러나지만 이는

매우 한정적이다. 속격표지로는 '의'로 단일화되어 속격 기능을 가지는 '에/애'는 없다.

3.5. 외국어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에 의한 음역 표기와 한자에 의한 한자음역 표기로 나뉜다. 한글음역 표기시에도 외국어를 전사하기 위한 인위적인 자형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있으며 대체로 국어의 표기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개화기 교과서에서의 문체는 대체로 국한혼용체를 보여 준다. 이때의 국한문은 전통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대부분은 개화기 국한문체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이는 한자어의 사용이 지나치게 많아 마치 구결의 형식과 유사한 것이다. 문장의 길이는 거의 근대국어와 같이 장형문의 성격이다. 이는 문어체와 구어체의 형식과 관련하여 일부의 자료에서 보여 주는 구어체 및 문답식의 경우에는 단형의 문장이 나타나기도 한다.

참 고 문 헌

- 金敏洙(1973), 國語 政策論, 서울:高麗大學校 出版部.
- 金重鎮(1987), “近代 國語 表記法 研究”, 全北: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申昌淳 外(1992), 國語表記法の 展開와 檢討, 서울:韓國精神文化研究院.
- 민현식(1994), “개화기 국어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1, 서울:국어국문학회.
- 朴炳采 外(1973), 日帝下의 文化運動史, 서울:民衆書館.
- 박중희(1993), 국어 음운론 연구(II), 전북:원광대학교 출판국.
- 沈在箕(1992), “開化期の 教科書 文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7, 서울:국어국문학회.
- 李基文(1981), 開化期の 國文研究, 서울:一潮閣.
- (1989), “독립신문과 한글 문화”, 周時經學報 제4집, 서울:탑출판사.
- (1990), 國語音韻史研究, 서울:國語學會.
- 李崇寧(1985), 中世國語文法, 서울:乙酉文化社.
- 李鍾國(1991), 한국의 교과서, 서울:大韓教科書株式會社.
- 田光鉉(1967), “17世紀 國語의 研究”, 國語研究 19, 서울:서울대학교.
- (1971), “18世紀 後期 國語의 一考察”, 論文集 第13輯, 全北:全北大學校.
- 洪允杓(1986), “近代國語의 表記法研究”, 民族文化研究 第19號, 서울: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